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14장 영혼의 조화

◆ 1교시 영혼의 참된 즐거움, 진리 추구

▲ 이성을 따르는 영혼의 참된 즐거움

594쪽 끝에 보면,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차게 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려분별, 혹은 지혜와 훌륭한 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잔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래로 갔다, 중간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다 이 밑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헤매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서로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과정을 계속 하니깐, 그 과정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탐욕이 계속 커져가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져가죠. 586 b, 595쪽이에요. 뭐, 얘기가 너무 거창한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글라우콘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실탁 투로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글라우콘이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596쪽 넘어가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 특히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괴로움하고 즐거움이 막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 뒤섞여 있는 것은 사실은 참된 즐거움의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 혹은 어떤 모상, 영상, 그런 것에 불과한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은 욕구적인,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격정적인 부분 혹은 기개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명예욕이나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아, 재가 잘 나가네’ 이러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면 시기심은 분명히 또 어떤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등해야 되는데, 재가 1등 했어. 다음에는 내가 1등해야지’, 이러면, 다음에 1등하면 ‘아, 이제 좋다’ 막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잘하면 시기하고, ‘재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재가 더 많이 벌었어.’ 또 막 시기하다가, 또 막 벌면 ‘돈 벌었네’ 하면서 뿌듯해하고, 그런 식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96쪽 밑 부분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利)를 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득을 탐하는 부분, 그게 욕구적인 부분입니다. 이득을 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기기를 좋아하는 부분, 명예를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식(인식: epistēmē)과 이성적 추론(논변: logos)을 따르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게 될 때는 분별 있는 부분이 인도하는 즐거움만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러한 즐거움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96쪽, 597쪽 넘어가는 얘기가요. “그

것들이 취하게 되는 즐거움은 진실, 그것들이 진실 된 것들로 취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가장 진실 된 것이고요. 이것들이 진실에 따르기 때문이고, 이 즐거움은 각각의 가장 좋은 것이 정녕 그것에 가장 특유한 것이기도 하다면, 그것들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면서 반목을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를 수 있고, 각각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참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이젠 다 지우겠습니다.

▲ 영혼의 각 부분이 갖는 욕구와 고유한 즐거움

영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계속 나온 이야기죠.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합시다만, 욕구적인 부분만 욕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도 다 욕구를 갖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기개 안에도 여러 종류의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성 안에도 여러 종류의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욕구적인 부분이 갖는 욕구들은 다 정의 상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이에요. 그렇죠? 기개적인 부분이 갖는 부분은 정의 상 역시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들이 전부 다 욕구적인 부분에 적합한 욕구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개적인 부분에 있는 욕구들이 전부 다 기개적인 부분에 적합한 욕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조차도, 이성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욕구들이 전부 다 이성에 적합한 욕구나,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즐거움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즐겁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안 채워졌다, 그러면 즐겁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종류의 욕구가 있는 곳에는 그 욕구의 충족과 관련한 즐거움이 항상 있는데요. 그 욕구가 자기 부분의 고유한, 특유한 그런 종류의 요구라면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그 부분에 고유한, 그 부분에 잘 맞는, 그런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고유한 즐거움이라는 것, 그 부분에 고유한 욕구라는 것,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냐.

▲ 영혼의 각 부분이 지닌 두 가지 규정 - 사실적인 규정과 규범적인 규정

애초에 이성을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돈 혹은 이득을 사랑하는 부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국가』 4권에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를 생각해 보면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헤아리는 부분, 계산하는 것. 기개는 뭐였냐면, 그것을 통해서 화내는 부분이었어요. 화내는 부분이란 말이 기개고요. 욕구, 이젠 그것을 통해서 욕체적인, 뭐 욕체와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 자, 그런데 헤아리는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헤아리는 부분이다, 라는 이름도 있고,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규정도 있는 거예요. 기

개에 대해서도 화내는 부분이라는 규정도 있고,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는 규정도 있고. 욕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욕체와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이라는 규정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라는 두 가지 규정들이 다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규정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A규정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A규정이라고 그러고, 이걸 B규정이라고 한 번 해봅시다.

A규정들은 전부 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고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이성 이 될 하느냐, 이성이 이런저런 계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참주적인 인간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이성적인 부분과 기개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계산을 하는 역할을, 계산 할 거 아니에요. 수학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있겠습니까만, 하다못해 내가 내일 소풍을 갈 텐데, 소풍을 가려면 도시락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계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성적인 부분이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화내는 부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것은 이 기개가 실제로 영혼의 기개하고 관련해서 기개적인 부분이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욕구적인 부분은 밥 먹는 걸 욕구한다든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욕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생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욕구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욕구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A규정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B규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왜 도대체 이성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왜 A규정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B규정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누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일 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인데요. 이성적인 부분이 항상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과두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 할 때 보면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과두정체적인 인간도 분명히 이성도 가지고 있고, 기개도 가지고 있고, 욕구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세 부분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은 뭘 하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 과두정체적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은 어떤 욕구들을 종류의 갖느냐면,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좋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은 돈을 버는 것이 좋다, 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고, 돈 버는 일이 좋다, 라고 그래서 이성이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이성적인 부분은 돈 버는 일이 실제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돈 버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항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은 돈을 추구를 해요. 돈이 좋다고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 계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욕구 중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욕구도 이성적인 부분을 가릴 수 있어요, 『국가』 편에 있는 그림에 따르면.... 물론 해석이 좀 들어간 건데,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은 돈을 추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 좋아해서, 돈이 좋은 거다, 라고 이성이 승인을 했으면, 그때 그 이성은 더 이상 지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이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성이 제 기능을 다했을 때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A규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성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뭐냐, 라고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이성이 없는 존재가 아닌 한, 인간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성인 인간은. 갓난 애기는 뭐 이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성인 인간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한에서, 이성을 갖고 있는 한에서 다 어떤 계산 작용을 해요. 그 계산 작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성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성이 하는 일들은 다 이 계산을 해요. 하지만,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그 사람의 이성이 정말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성이 추구하는 욕구들, 그러니까 이성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지는 욕구들, 그것이 바로 지혜에 대한 욕구가 되는 겁니다.

명예는 뭐냐, 화내는 사람들, 화내는 게 특별히 명예... 내가 화낸다고 하는 것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화가 나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완전히 내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요.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껍판을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자,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열이 받아서 '이 뭐야!' 이러면서 회의장 부수고 이러는 경우에 그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명예를 추구하는 행동이냐.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재는 이상한 애야'하고 완전히 찍혀 가지고 불명예를 갖게 될 수가 있죠. 화내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기개적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할 때 추구하게 되는 것이 명예에 대한 추구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이 항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건 이득인데요. 이득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욕구들 많이 있어요. 특히 민주정체에서 민주정체적인 인간들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욕구들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욕구들은 이득이 되지 않는 욕구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불필요한 욕구를 막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욕구적인 부분이 이득을 정말 추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참주적인 인간의 욕구는 진짜 막 낭비하고, 전혀 도움 안 되는 욕구들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욕구적인 부분들이 갖는 욕구들 전부 다 욕체와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이득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욕구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제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 하게 되면 그때 욕구적인 부분은 이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B규정들은 약간의 규범적인 규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규정들은 사실적인 규정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기개는, 화를 내는 작용을 하는 건 다 기개고,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이성이고, 뭐 이런, 욕체와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런 건 전부 다 욕구하고 관련된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각의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기능을 했을 때, 이성은 지혜를 추구하게 되고, 기개는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욕구는 이득을 추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규정들은 전부 다 뭔가 좀 제대로 됐을 때 추구할만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예요.

Q. 그, 이득은... 이득이라는 것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도 이득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이득인데, 세 번째 부분이 좋아하는 이득이라는 것은...

A. 예,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이득이라는 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이득. ‘하필왈이(何必曰利)’ 할 때 그 이(利)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든지 몸에 좋은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득들을 얘기한 건데요.

▲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것과는 다른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한 추구

지금 그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규범적인 성격,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명예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개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욕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이득을 추구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 질문한 것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단순히 일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이, 이성은 어차피 지혜를 사랑하는 건데, 기개적인 부분이 기능을 제 기능을, 원래 생겨먹은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명예를 추구하게 된다, 라는 거지만, 제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탁월한 정도까지 기개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명예라는 건, 명예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명예로워 보이는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예를 구별하게 되면 뭐냐면, 명예로워 보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명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예롭다고 보통 얘기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뭐 무슨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통 명예롭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뭐, 정치가가 돼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명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명예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진짜 명예로운 것, 그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명예로운 것은 뭐냐, 그것은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이 진짜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가... 철학자의 어떤 기개... 철학자라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를 보고서 삶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진짜 좋은 것, 그것이 진짜 명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욕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제 기능을 좀 발휘를 하게 되면, 전혀 기능을 못 발휘하면 별 이상한 것도 막 추구하게 돼 있지만, 어느 정도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된다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된다, 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뭐, 건강한 것도 추구할 수가 있고, 돈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것도 추구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득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것,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득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도 진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추구하도록 되는 것이 욕구적인 부분이 가장 잘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

요.

▲ 진리 추구, 이성이 주도하는 영혼의 조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려면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영혼이 조화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애는 이리로 가고, 재는 이리로 가고, 애는 이리로 가면은, 그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영혼의 세 부분이 한 방향을 향해서 딱 가야 되는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진정한 명예, 진정한 이득 뭐,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진정한다는 이 얘기는 전부 다... 진정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죠. 진리, 참이다, 란 얘기에요. 참으로 명예로운 것, 참으로 이득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결국엔 이성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바로 지혜라는 것이 진리 추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성이 인도를 해줘야만 진정한 명예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개는 저 혼자 힘으로는 기능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명예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덧붙여져야지만, 진정한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주도를 해줘야지만, 기개적인 부분도 진정한 명예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욕구적인 부분도 어떤 진정한 이득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2교시 영혼의 조화와 행복한 삶

여전히 사실은 그 정당화... 소크라테스가 그럼 왜 기개가 기능을 잘 하면 명예를 추구하게 되느냐, 기개라는 건 뭐냐... 사실은 이성, 기개, 욕구라는 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이걸 이름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 부분, 화내는 부분, 욕체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 이게 기본적인 이름이고요. 사실적인 이름이니까, 사실적인 규정이니까요. 애(화내는 부분)가 기능을 잘 하면 애(명예를 추구하는 부분)가 되고, 애(헤아리는 부분)가 기능을 잘 하면 애(지혜를 사랑하는 부분)가 되고, 애(욕체와 관련된 쾌락 추구)가 기능을 잘 하면 애(이득을 추구하는 부분)가 된다,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인데요.

▲ 이성적인(헤아리는) 부분의 성공 - 진리 추구

왜 그러느냐, 도대체? 만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먼저 여기부터 얘기해보자면, 헤아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계산을 왜 해요, 뭔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수학 문제로 생각하면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 답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계산한다,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내일 소풍이러 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지하철 어딜 어떻게 타고, 버스를 어떻게 타야지 거기서 가겠구나, 라고 계산을 했던 말이에요. 그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하철 몇호선을 타고, 어디 가서 버스를 갈아타서 가면 소풍의 목적지에 갈 수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계산을 완전히 헛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라는 건 애초에 진리에 대한 지향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뭔가 어떤 활동들을 할 텐데, 계산 활동들을 할 텐데, 그 계산 활동이 과연 성공적이었냐, 성공적이지 않았느냐 라는 건 무엇으로 판가름이 되냐면, 진리에 의해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계산에 의해서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대해서 판가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의 성공은 바로 진리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그 계산이 성공적이었느냐, 성공적이지 않았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돈을 벌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 벌려면 실제로 그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야지, 그게 맞았어야지 이성이 나름대로의 자기 작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 헤아리는 부분, 계산하는 부분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에 도달한 거고요. 자기, 이성적인 부분이 결국엔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 이성적인 부분이 제 기능을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 욕구적인(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의 성공 - 이득 추구

욕구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욕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욕구하는 거예요. 물론 계산 없이 욕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산 없이 욕구를 할 때 그럼 도대체 욕구를 왜 하나. 내

가 지금 저게 갖고 싶다고 그러면 저게 왜 갖고 싶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걸 갖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욕구가 어떤 것을, 욕구가 욕구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욕구의 대상이 가지기 좋은 것이라는 어떤 종류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이 명시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 하는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게 가지기 좋은 것, 뭐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아, 이거 좀 가지면 좋은 거다’라고 나한테 파악될 때 내가 이것을 욕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면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결국엔 그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면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가지지 못했던 상태에 비해서 나는 뭔가 이득을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지면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이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지기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득이라는 것이 이득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욕구적인 부분들의 성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욕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가지기 좋다, 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잘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욕구적인 부분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때 성공이라는 건 바로 이득을 통해서, 이득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면 좋은 것을 갖는 것.’ 그래서 욕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작동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할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잘 기능하게 되면, 진짜로 진정으로 가지면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 기개적인(화내는) 부분의 성공 - 명예(성취) 추구

그 다음 화내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요.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뭐가 좀 나쁘다는 생각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화를 낸다는 건 현 상황이 뭔가 좀 나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다 좋은데 화 안 나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좋아서 화난다, 일단 그건 말이 안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화가 난다고 그럴 때는 사실은 세상이 다 좋은 게 안 좋아서, 그렇죠? 좋은 게, 그러니까 내 주위 애들이 다 너무 좋아서 화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그런 상태가 뭔가 좀 나쁘다는 생각이 내가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역시 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 때는 이성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도 무작정 그냥 나쁜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뭐가 나빠요. 뭐가 나쁘니까 화가 치미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욕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뭔가 가지면 좋은 것을 가진다고 얘기했을 때, 막 계산 해가지고 ‘아, 이런 건 가지면 좋은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작업, 따져보는 것 전에 저게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라고 한다면 기개적인 부분, 화내는 부분의 화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작정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가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데요. 그런데 화라는 것이 뭔가 나쁘다, 라는 것 때문에... 화내는 부분인데, 화내는 부분도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건, 화가 났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인 거죠.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진짜 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그런 경우 없어요.

애초에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이것이 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어떤 행동에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써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 무언가를 아까처럼 때려부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나를 한 때 때려가지고 내가 화가 나요. 그럼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 화가 나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럼, 그때 화가 났을 때의 욕구는 어떤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안 좋은 상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이 나한테 좀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의식적으로라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을,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이거는 바뀌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욕구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재가 날 때렸어요. 재가 날 때렸어. 혹은 뭐, 욕 했어. 재가 나를 욕한 것은 뭔가 좀 나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쁜 상황으로 나한테 파악이 돼요. 나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아, 나쁘지만 좋다' 이러면 화도 안 나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재가 날 때린 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놔야, 이 나쁜 상태를 바꿔놓아야 돼요. 바꿔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도 한 대 때려줘야지 이 나쁜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욕했던 말이에요. 욕했으면 가서 때려주는 것도 내가 직접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해져요. 물론 내가 직접 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딴 사람이 재를 혼내줘도 '고소하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는 내가 직접 가서 한 대 좀 때려줘야지 화가 풀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현 상황이 뭔가 나쁘다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한테 있고요.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역시 무의식적으로라도 나한테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정이 특히나 나 자신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 더 화가 풀린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내가 뭘 해야 되요. 날 화나게 만든 게... 그러니까 복수도, 복수를 할 때도 나로 하여금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게 만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게 더 달콤한 복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는... 물론 일단 모든 종류의 욕구는 그것이 충족될 때 욕구가 충족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얻겠습니까만, 이거에 덧붙여져서 어떤 종류의, 주어진 나쁜 상황이 있는데, 그 나쁜 상황이 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정되었다는 것이 바로 특히 나 자신에 의해서 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더 어떤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화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기개의, 기개적인 부분의, 화내는 부분의 성공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마련되느냐면... 사실 기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얘기가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취를 깨달을 때, 즉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어떤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만한 어떤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개적인 부분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명예, 승리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좋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기개적인 부분이 잘 기능을 할 때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것, 진정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되는데요. 여기에서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승리를 사랑하는 부분. 승리라는 것도 일상적인 의미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기능을 할 때는 좋아 보이는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 하게 되는 건데요. 진짜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하게 되면,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Q. 불교 승려들이 출가를 해서 돈이나 세속적인, 돈이나 이득이나 명예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봤다면,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교에 들어가면 아예 성냄의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모욕해도 무심무념... 또 부처님 당시에 계실 때 일화가 있는데, ‘너를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죽여준다는데 그것도 감사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성내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이것을 약간 문제가 혹시...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예 성냄의 뿌리를 아예 잘라 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건가요?

A. 네, 일단 저도 일단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는 그게 꼭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세 종류에 어느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두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딱딱 맞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것하고 관련된 얘기도 조금, 직접 관련은 아닌데,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얘기도 그 다음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한 삶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지금 이걸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보면, 597쪽에 보시면, “각각이 자기의 즐거움들,” 587 a라고 된 데에 조금 윗줄입니다.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고 반목을 하지 않으면, 각각이 다른 모든 면에서도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이 자기의 즐거움을 최선의 그리고 가장 가능한 가장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거는 영혼의 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다 없애 버리고 이 부분만 키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맞는 가장 즐거운 쾌락을 지니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에 맞는 가장 즐거운 쾌락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부분은 싹 죽여 버리고 한 부분만 키운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엔, 세 부분이 다 각자 자기 맡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세 부분이 다 각자 자기 맡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정말 충실하게 잘 수행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건 이성만 비대해진 삶이 되라,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좋고, 이 부분도 좋고, 이 부분도 다 좋다.

▲ 729란 숫자

그래서 729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729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598쪽 넘어가서 보시면요. “즐거움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적출(嫡出)이고 나머지 둘은 서출인 것 같은데,” 적출은 물론 이쪽(이성)에서 관련된 즐거움, 기개와 욕구랑 관련된 즐거움이 서출이 되겠지요. “참주는 서출들인 즐거움들의 저편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것에서도 끝에 넘어가 있다. 그 다음에 참주는 과두정체적인 인간에서 세 번째쯤 떨어져 있고, 중간에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있어서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즐거움인 세 번째 영상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왕도정체적인 인간, 그러니까 정의적인 인간, 뭐 여기에서 세 번째로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주는 참된 즐거움에서 수적으로는 세 배의 세 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의 수와 같다.” 그 다음에 쪽 가서 그러니까 곱셈을 뭐, 제곱, 세제곱을 하다 보면 729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뭘 얘기인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한 것도 방금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자, 599쪽 이제 평면 도형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면 도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주는 과두정체적인 인간에서 세 번째쯤 떨어져 있다.” 여기 이제 참주, 뭐, 참주정체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과두정체적인 인간. 중간에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있으니까. 세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 즐거움이 지혜와 관련된 즐거움, 명예와 관련된 즐거움, 여기 그 다음에 이득과 관련된 즐거움입니다. 이게 적자나 서자 둘, 뭐 이렇게 있는데... 서출들의 즐거움 중에서도 제일 끝에 가 있는 게 참주고요. 그 다음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왕도정체적인 인간에서 세 번째예요. 여기 이제 왕도정체적인 인간. 중간에 이제 그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셋이고, 이게 이제 3이고, 이게 3이죠. 그래서 599쪽에서, “세 배에 세 배만큼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왕도정체적인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평면도형의 수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729가 어떻게 나오면, 여기 3 곱하기 3이면 9란 말이에요, 그렇죠. 729는 뭐냐 하면, 9에 3승을 하면 729가 나와요. 그런데 왜 세제곱을 하느냐. 왜 세제곱을 하는지가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뭐, 여기 그 박종현 선생님 주에도 보면, 729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729란 숫자의 중요성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세 제곱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정당화를 하자면,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제 해석입니다만, 이게 바로 영혼의 세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 영혼의 세 부분이 질서를 이루는 삶 - 왕도, 명예, 과두정체적인 인간

이 세 그림은 뭐냐 하면, 결국엔 뭐냐 하면, 영혼의 어느 부분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셋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왕도정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기개적인 부분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때의 지배는 좀 지속적인 지배, 규범적인 지배, 그러니까 전에 우세적

인 지배와, 일시적인... 우세적인 그런 지배와 지속적인, 규범적인 지배, 그런 구별을 했었죠. 그때 규범적인 지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욕구적인 부분이... 이건 이제 지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왕도정체적인 인간)은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거고, 이 사람(명예정체적인 인간)은 기개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거고, 이 사람(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욕구적인 부분이 지배해요. 이쪽 그림은 뭐냐, 어떤 지배, 규범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규범, 무질서. 규범적인 지배는 질서를 함축해요. 이거는 반쯤의 규범, 반쯤의 질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혼의 어느 쪽이 어느 부분이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욕구적인 부분이 영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성과 그 사람의... 과두정체적인 인간을 보면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과 기개적인 부분을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 밑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노예를 삼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이성적인 부분하고 욕구적인 부분의 추구를 승인을 하고, 뭔가 좀 그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돈을 추구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대로 질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한에서 애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보다 낮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고요. 그럼 점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삶이, 왕도정체적인 인간, 명예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들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질서가 잡혀져 있어요.

▲ 영혼의 세 부분이 무질서한 삶 - 민주, 참주정체적인 인간

이에 비해서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그 사람의 삶이 질서가 없어요. 이때는 이거 했다가 저때는 저거 했다가 저때는 저걸 했다가 이걸 추구했다가 저걸 추구했다가 막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규범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질서가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질서가 어떤, 제대로 된 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완전히 무법적이고, 완전히 무법적이어서, 도대체 이성하고 기개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제대로 승인도 못 하고...

과두정체적인 인간하고 참주정체적인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그래도 이성하고 기개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요. 이성은 돈 버는 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돈 버는 것들을, 돈 버는 방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잘 맞아서 돈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개는 돈 버는 것이 진짜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돈 버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돈 많은 사람을 존경도 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스스로 자부심도 좀 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애(참주정체적인 인간)는 이성이 도대체 계산을 해줄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욕구적인 부분에, 그 중에서도 작은 한 부분이 제 멋대로 막 가니까 이성은 너는 갈 데로 가라,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기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개적인 부분도, 참주적인 인간의 삶은, 도대체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정도의 삶이 돼버려서. 애는 기개도, 기개와 이성은 한탄만 하고 있고. 욕구적인 부분에서도 참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욕구들만 남아 있지, 좀 제대로 된 욕구들은 전부 다 막 이렇게 죽어서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세 사람(왕도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인간)을 비교해보면요. 다시 반복입니다만,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 이 사람도 이성과 기개와 욕구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의 욕구가 추구하는 것을 이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각의 이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이성이 가장,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탁월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성이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성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승인을 했던 말이에요. 이때의 이성은 돈 같은 게 좋다고 승인을 하고서 그걸 위한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 자체도 자신의 정말 고유한 기능을 못 해서 그만큼 더 즐거움을 덜 얻게 돼요. 기개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건 욕구적인 부분조차도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욕구적인 부분과 왕도정체적인 인간의 욕구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 인도할 때에만 욕구적인 부분조차도 자기한테 맞는 가장 고유한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조차도 이 사람(왕도정체적인 인간)의 욕구적인 부분이 더 많은 어떤 즐거움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두정체적인 인간하고 비교하면, 이성도 세 배, 기개도 세배, 욕구도 세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27배.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왕도정체적인 인간에 비해서, 27맞습니까? 3의 3승? 그렇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니까.... 27배. 이 사람은 두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이니까. 2의 3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덟 배. 여덟 배 좀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참주정체적인 인간)은 뭐냐면, 각각의 경우가 이성도 3곱하기 3배만큼 떨어져 있고요. 기개도, 이게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기개도 3곱하기 3배 만큼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욕구적인 부분도 3곱하기 3의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에 3승을 해서 729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이대로 쭉 이 formula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서 해 보면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어떻게 돼요. 3곱하기 2, 이만큼 더 비참한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729배 더 괴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농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농담 끼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각 부분들이 다 제 기능을 완전히 다 수행하는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상태보다 계속 못 해지는 상태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차이가 궁극적으로 729배 정도까지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다 됐지만,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 이어서요.

◆ 3교시 더 나은 영혼을 위해서

▲ 부정의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주장의 논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엔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나서, 600쪽에 보시면요. 과연 애초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 하면, 정의로운 사람하고 부정의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이득이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뭐냐. 600쪽에 보시면, 도대체 정의롭지 못한 사람,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영혼이 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아까 그 세부분에 보면 이 전체가 말하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 안에 작은 인간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여기 사자가 있고 여기 머리 여럿 달린 괴물이 있어요. 그 얘기가 600쪽 601쪽까지 나오고요. 부정의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인간은 굶주리게 만들고, 머리 여럿 있는 괴물들 중에서도, 짐승들이 여럿이 섞여 있는 앤데, 그 중에서 사나운 애들만 좀 키워주고 온순한 애들은 다 죽여 버리고, 이런 상태, 이런 걸 가지고서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한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득 같은 거 생기면, 돈 같은 거 벌면, 그게 이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어떤 얘기냐 하면 마치, 예컨대 소크라테스가 들고 있는 예로 보자면, 황금을 많이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어디 노예로 팔아넘기면 그 사람이 그러고서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행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마치 부정의, 걸리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행동하는 것이 행복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돈 같은 거 황금 많이 얻었는데, 자기 아들 딸 노예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 속의 인간, 이게 진짜 말하자면 그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거의 초죽음 상태로 만들고 나서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답에 이르기 위한 과정, 『국가』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좀 하자면 소크라테스가 한참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제 뭐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될 일이고요. 그런 걸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한 얘기들만 가지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또 이제 『국가』를 천천히 혼자서 읽어보시면서 그런 판단들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 하면, 이제... 애초에 정의로운 것이 행복한가, 부정의한 것이 행복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도대체 정의가 뭐냐, 부정의가 뭐냐, 라는 것을 모르고서, 정의가 무엇이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정의로운 사람이 더 행복한지, 부정의한 사람이 더 행복하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4권 정도까지 규정을 했어요. 정의란 것은 영혼이 조화로운

것이다. 이제 부정의는 뭐냐, 8권, 9권에서, 부정의는 영혼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성적인 부분이 노예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의 멸절 상태 비슷하게 가게 되는 것, 이 단계에 따라서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요.

만약에 부정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불행하다'라고 느끼면 몰라, 이제 간혹 가다 느낄지 몰라도 항상 '내가 진짜 정말 불행하다', 그러면 부정의한 행동 안할 수도 있죠.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뭐, 수업 초반에도 얘기를 한 건데요. 단순히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아하,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가만히 알고 보면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참주적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참주적인 인간은 계속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후회와 한탄을 이 참주적인 욕정에 의해서 자꾸 자꾸 눌러 가지고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삶을, 부정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더 좋은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꺾어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지리산만 내가 가보고서 '아, 지리산 좋네.'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정말로 지리산보다 알프스가, 실제로 지리산이 좋은지 알프스가 좋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예를 들어서 알프스가 진짜로 좋은 거라고 한다면, '알프스가 진짜 더 좋다, 한 번 가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더 좋은 거다. 한 번 가보고서, 가보지도 않고서 이런 정도의 삶 가지고서 만족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삶이라는 게 참주적인 삶은 도대체 만족할 수 없는 종류의 삶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기에는.

하지만 과두정체적인 인간, 명예정체적인 인간, 왕도정체적인 인간, 이 셋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두정체적인 인간, 자기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추구해가지고 막 살아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성공한 삶을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사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뭐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의구심 같은 것이 중간 중간 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산다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더 진짜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더 행복한 삶이 있고, 만약에 네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경지에 만약 이르기만 한다면, 주관적으로도 네가 '아, 이게 진짜 좋은 삶이었네, 내가 이런 걸 모르고서 엉뚱한 걸 추구하고서 살았네,'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애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의 기능을 그래도 좀 잘 발휘해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

냐. 그런데 기능이라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기능들이 다 잘 발휘되려면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정의로운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거고요.

▲ 「국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의 문제 -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영혼의 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고, 끝에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영혼의 기능 얘기들만 막 하고, 뭐 정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의라는 것을 행동의 차원에서 정의가 아니라 영혼의 차원의 정의로 분명히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조화로운 게 영혼이 조화로운 상태다. 그런데 영혼이 조화로운 상태에서 이성과 기개와 욕구적인 부분이 협력해서 어떤 부정의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부정의한 행동을 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내 영혼에 조화가 생기나요? 약속 한 번 지켰다고 해서 영혼이 조화롭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친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순수하게 정의로운 상태엔 못 도달한 거예요. 진짜 이 정의로운 왕도정체적인 인간이 되려면, 좋음의 이데아도 보고 이런 깨우침을 좀 가져야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의 영혼, 그런 사람 깨우치면 좋겠지, 뭐 그거 인정할 수 있는데요.

당장 내가 과연 정의로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한테 실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자체로써 바로 영혼의 조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혼이 조화로운 방향 쪽으로 가도록, 그런 지향점을 갖는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행동들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부정의한 행동들이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행복함을 누리는 데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될 수 있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영혼의 조화를 다 이렇게 진작시켜주는 행동들이고 부정의한 행동들이 그 영혼의 조화들을 파괴시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부정의한 행동을 도대체 왜 하나면, 뭔가 재물 욕이 있거나 무슨 어떤 뭔가 부정의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의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것을 방향을 잡아서 그 쪽의 삶을 설정해서 가려면 당연히 어떤 정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조화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기준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에 부정의한 인간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 중간 중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정의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부정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의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인간도 행동 자체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행동들, 그런 정의로운 행동들이란 건 뭐냐면, 영혼의 조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의로운 행동을 할 것인가, 부정의한 행동을 할 것인가. 사기를 칠건가,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행동하는 것이 당장에는 남들 안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좀 얻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명예를, 예를 들어서 무슨 학위 안 받고서 학위 받았다고 사기 쳐서 교수가 되면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당장에는 그런 어떤 부정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너는 사실은 너의 영혼의 길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다. 영혼의 길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자꾸 이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소한, 교수 되면 뭐하고, 돈 좀 벌면 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돼도 걸려가지고 나중에 잘릴 수도 있고요. 돈도 벌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실제로 왔다 갔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영혼의 상태를 네 영혼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왜 도대체 우리가 정의로워야지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국가편에서 내리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수업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못해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흡한 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언제나 중요한 게 철학이라는 건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번 플라톤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자기도 과연 그런가, 이게 좀 설득할 만한가, 설득될 만한 내용인가 생각해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부정의한 사람이지만, 내가 부정의한 인간이라고 해서 나는 부정의한 행동을 그 내 존재에 맞는 어떤 부정의한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부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좀,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건데요. 두 종류의 위선이 있는데, 부정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위선이라는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의 나의 못난, 그런 어떤 현재의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현재 조건이 못났어도 뭔가 좀 더, 내 못난 존재보다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된다, 라는 것이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써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